



## ● 이달의 청소년 도서

### 1분기 선정 신청 안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낙준)과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독서생활화 풍토 조성 및 청소년 도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청소년 도서 사업이 2004년 1/4분기 선정도서 신청을 받는다.

200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 도서, 청소년(중·고생)이 읽기에 적합한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문학·예술, 종교·철학, 과학·기술, 인문·사회, 역사 분야에서 30종 이내의 도서를 선정한다.

출판사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도서 리스트, 해당도서 2부를 3월 8일까지 협회 기획사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www.kpa21.or.kr

##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 융자이율 인하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낙준)은 최근 출판지원금 및 주택자금에 대한 융자이자율을 재인하, 지난 2월 1일부터 월 0.45퍼센트(연 5.4퍼센트)를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융자종류별 한도액, 융자기간, 이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출판융자: 1사당 1억5,000만 원 / 4년 이내 / 월 0.45퍼센트 ▶ 기획출판융자: 1사당 1억5천만 원 / 4년 이내 / 월 0.45퍼센트 ▶ 단기출판융자(어음할인): 1사당 5,000만 원 / 4개월 / 월 0.45퍼센트(적격업체 발행어음은 1억 원을 별도로 지원) ▶ 주택자금융자: 1인당 5,000만 원 / 10년 이내 / 월 0.45퍼센트

문의전화 (02)732-1434

## ● 한국콘텐츠출판학회 발족

콘텐츠출판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콘텐츠출판학회가 지난 2월 4일 발기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장에 이기성(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교수를, 부회장에 이창경(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와 박영실(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총무이사에는 고경대(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홍보이사에는 손애경(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가 임명되었으며, 감사에는 김경수(동원대학) 교수가 선출되었다.

이기성 회장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출판산업과 인쇄산업 분야를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던 중, 좋은 출판물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출판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 및 실무에 알릴 의무를 갖고 학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출판학회에 참여하는 학교는 계원조형예술대학, 신구대학, 동원대학, 한양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중부대학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등이다.

## ● 대한출판문화협회

### 제 57차 정기총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월 24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 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200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정관개정(안)은 서면결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 회원사 및 2004년도 주요 추진사업, 국제도서전 안내, 출판관련기관·단체 및 저작권 대리업체, 서점 명부 등을 수록한 회원수첩(A6신 / 302쪽 / 5,000원)이 발간됐다.

구입문의 (02) 735-2701

## ●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 이종춘 회장 선출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는 지난 2월 11일 롯데호텔 피콕홀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임기 2년의 회장에 재임된 이종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 도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과학기술 도서 초판본을 소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서박물관의 건립이 절실하며, 이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1973년 도서출판 성안당과 주식회사 첨단을 설립한 후 2,000여 종의 전문 과학기술 서적 및 8개의 전문잡지 발간을 통해 산업계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심)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김원일 지음, 문이당) ▶ 고대로부터의 통신(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지음, 푸른역사) ▶ 시애틀(최종덕 지음, 당대) ▶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김인수 지음, 신원문화사) ▶ 한국인 트렌드(김경훈·김정홍 지음, 책바치)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야코프 부르크하르트 지음·이기숙 옮김, 한길사) ▶ 유전자의 영혼(레고 모리슨 지음·황수연 옮김, 전파과학사) ▶ 눈·밖에·나다(국가인권위원회 기획, 휴머니스트) ▶ 나는 걷는다(전3권)(베르나르 올리비에 지음·임수현 옮김, 효형출판) ▶ 100년 후에도 읽고 싶은 한국명작동화(한국명작동화 선정위원회 엮음, 예림당)

## ●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의 후원으로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 연대, 일간스포츠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03년 하반기 오늘의 우리만화'에 기획 시리즈형 음식만화 《식객》(허영만 지음, 김영사), 에세이 만화 《쓰그만...얘기》(강성남 지음, 반디출판사), 서정만화 《미정》(변병준 지음, 길찾기) 등 3편이 선정되었다.

3편의 만화는 총 51편의 추천작 가운데 작품성과 대중성, 만화문화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상금은 편당 300만 원.

● **계간 <문학수첩> 제2회 문학수첩문학상 공모**

계간 <문학수첩>이 제2회 문학수첩문학상을 공모한다. 당선작에 상금 3,000만 원을 주는 '문학수첩 작가상'은 신인·기성작가의 제한을 두지 않고 10월 31일까지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의 장편소설을 공모하며, '문학수첩 신인상'은 시 단편 소설 문학평론 문화비평 부문으로 나누어 6월 30일까지 원고를 공모한다. 상금은 시 부문은 200만 원, 나머지 부문은 300만 원이다. moonhak@moonhak.co.kr

● **출판문화학회 <출판잡지연구> 발행**

출판문화학회(회장 전영표)가 <출판잡지연구>(A5신/182쪽/2만 원) 11호를 펴냈다. 이번호에는 전영표 발행인의 '출판·잡지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재구축'을 위한 연구와 이용성 한서대 교수의 '공공영역의 쇠퇴와 지식인 잡지에 대한 연구', 금창연 동원대 교수의 '유통 형태별 소비자 태도가 출판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한국잡지협회의 의뢰로 출판문화학회와 상록문화정보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잡지유통의 선진화 방안 연구' 논문 초록과 함께 자료편에 2003년도 출판·잡지 통계를 실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특별전 '서양인이 본 우리 옛 모습'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병수)은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특별전-서양인이 본 우리 옛 모습'을 1층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1950년 이전 우리나라 관련 서양서 자료를 전시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홍보하고, 서양인의 눈을 통하여 바라본 우리 옛 모습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전시에는 관련서적 100여 종이 전시되었다.

●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및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신청 접수**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이 5월 31일까지 '대산창작기금'과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사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 **대산창작기금** : 등단 10년 이하인 문인이나 미등단 신인을 대상으로 시와 시조(50편 이상), 소설(장편 1편이나 창작집 1권 분량), 희곡(장막극 2편 이상), 평론(원고지 1,200매 이상), 아동문학(동시 50편 이상 또는 동화 원고지 600매 이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해 각 1,000만 원씩의 창작기금을 지급한다.

▶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사업**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4개어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각 1,5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번역지원 신청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번역대상 작품목록에서 번역을 희망하는 작품, 지난해 대산문학상 수상작인 김광규 시집 <처음 만났던 때>, 송기원 소설 <사람의 향기> 중 한 작품을 선택해 번역하면 된다.

문의전화 (02)721-3202, www.daesan.org

● **민족문학작가회의**

**염무웅 이사장 취임**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최근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문학평론가 염무웅(영남대 독문학과 교수) 씨를 뽑았다.

염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전임 현기영(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해 왔으며,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년이다. 부이사장으로는 이시영, 이하석, 김준태(이상 시인), 최인석(소설가) 씨가 선임됐다.

● **김남주 시인 10주기 추모제**

김남주 시인의 10주기 추모제가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2월 13, 14일 양일간 전남 해남 문예회관과 생가, 5·18기념문화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가수 안치환, 극단 '토박이'와 '신명',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시인, 민예총 영산분과위원회, 광주대 무용과, 청년노래단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5·18기념문화관에서는 '소설가 황석영이 본 김남주의 삶과 문학세계' 강연이 있었다.

● **춘천 남이섬**

**국제 안데르센상 수상 작품전 개최**

국제아동도서협의회(KBBY)와 한국어린이아동영화 공동 주최로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안데르센상 수상자들-작가와 작품전'이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춘천 남이섬 안데르센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1956년 이후 국제안데르센상 수상작가 및 화가 44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편 국제아동도서협의회는 오는 3월 15일까지 '한국 안데르센 그림자상'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분야는 아동문학(동화), 출판미술(일러스트레이션), 동요음악(작곡) 등.

문의전화 (031)582-5118, www.kbby.org.

● **볼로니아동도서전 선정**

**'볼로니아 라가치 상' 최초 수상**

오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41회 볼로니아동도서전'의 부대행사의 하나인 '볼로니아 라가치 상' 심사결과, 최초로 한국 도서 2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볼로니아 라가치 상에는 전 세계 31개국의 173개 출판사에서 1,073종의 도서가 접수되었으며, 픽션과 논픽션, 뉴호라이즌 부문에서 8편의 수상작을 냈다.

이 가운데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에 웅진닷컴의 <팔죽할멈과 호랑이>(조호상 지음·윤미숙 그림), 초방의 <지하철은 달려온다>(신동준 글·그림)가 선정되었다.